

2004년부터 개정되는 국제특허출원시스템

2004년 1월1일부로 국제특허출원 시스템의 개정으로 다중국가에서 특허권 보호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진일보하게 됐다.

특허권보호가 찾아지게 되는 지정국에서의 새롭고 간편한 시스템에서부터 향상된 탐색과 예비심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에서의 일련의 개정으로 여러 국가에서특허권 보호를 획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했다.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시스템인 PCT는 국제 특허권에 대해 검색할려는 모든 발명자 및 출원인들이 첫번째로 취해야 하는 단계를 단순화 시킴으로서 외로운 발명자 뿐 아니라 많은 회사를 위해서도 유익한 시스템 루트를 구축했다.

2001년 중반 WIPO의 감독하에 개시된 PCT는 발명인이나 출원인이 단 하나의 국제 출원을 통해서 120여개국에서 특허를 얻을 수 있게끔 효율을 증진시켰다. 복잡한 출원 특허 기술이 더욱 증가하고 전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출원 속도에 시기적절하고 높은 효율성을 가진 특허청 능력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들은 더욱 효율적인 특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와 연동되어 접속이 용이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국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열의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의해 개정 요구가 증가되었다.

개정된 과정을 통해 그리고 3년 이내에, 중요한 향상된 점들이 법적 틀 내에서 소개될 것이고 이는 그들에게 효과를 가져다 줄 사용자들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통해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간소화된 지정국 관련 절차와 요금 체계
- 새롭게 진일보한 검색 및 조사 시스템
- PCT 과정 중에 중복업무 감소
- 국제예비조사의 3단계 항목의 집약화

정보출처 (www.wipo.net)  
 발행일 : 2003. 12. 31 / 발행국가 : UNITED STATES / 원문언어 : English

- 해외동향과 기술동향 내용은 Kosen(The Global Network of Korea Scientists & Engineers)의 홈페이지에서 발췌.

유럽연합 확대에 따른 유럽 제약시장의 변화

유럽 제약 시장은 올해 들어 중요한 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음. 올해 유럽연합(EU)으로 10개국이 추가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특히 약물의 허가 규정, 가격, parallel trade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제약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네릭 분야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인 매출 포텐셜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미개척의 시장에 제약업체가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atamonitor의 보고서 'European Market Entry Strategies'에서 현재 유럽을 움직이는 제약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그리고 10개의 새로운 EU 가맹국이 탄생하는 2004년 5일 이후 유럽연합에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을 위한 최적의 접근법이란 무엇인지 평가하고 있다.

\* 유럽의 변화

EU의 확대가 제약업체에 대한 중요한 시장 기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EU에 가맹하는 국가들(동유럽과 중유럽 지역)의 평균적인 정부 의료비용은 현재 EU 15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유럽연합시장에 진입하는 신약에 대한 선택과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왜냐하면 이들 국가 정부는 신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 EU 가맹국들과 기존 EU 15개국간에 경제적 차이가 본질적으로 있더라도 여러 추가 가맹국들은 의료예산의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약가 규제 시스템(regulated pricing system)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Slovenia의 경우, 기존의 약가 pricing 정책을 개혁하여 공식적인 reference pricing 시스템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이는 '보다 싼' 수입 제네릭 약물에 대해 비중을 두는 것임. 추가 가맹이 이루어진 후 핵심 EU 시장은, 또한 Slovenia의 예를 따라서 이들의 pricing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의 확대를 통해 또한 일부 EU 국가들이 의료 예산을 안정할 때 다른 EU 가맹국들의 약가를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EU 평균의 최저 가격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파라미터는 다른 EU 가맹국들에서 약가 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추가 가맹 이후에도 약가를 낮추는 압력이 지속될 경우 전 유럽의 약가 pricing에 대한 영향력이 혁신적인 약물을 시판하려는 업체들이 해야하는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보출처 (www.datamonitor.com)  
 발행일 : 20040116 / 발행국가 : UNITED STATES / 원문언어 : English